

# 민요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일 고찰

조하연\*

##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삶에 대한 인식과 표현으로서의 민요
- III. 민요에 내재된 인식과 표현의 방식
- IV. 맺으며—삶의 고양을 위한 민요 교육

## I. 들어가며

문학교육은 인간이 문학을 향유하며 즐기는 중에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이유에서 문학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학에 대해 ‘이는’ 것보다는 문학을 ‘하는’ 것에 주목하며,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중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민요만큼이나 이러한 목표에 잘 어울리는 장르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민요는 우리 시가 문학의 근간으로서 오늘날까지도 향유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여전히 살아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이나 문학교육 연구에서 민요가 실제로 차지하는 위상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민요는 다른 장르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뒤쳐졌던 이유로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교교육에서 본격적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학교교육에 포함된 이후로도 몇몇의 작품이 민요의 특성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sup>1)</sup> 다시 말해 그것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다른 장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었다.<sup>2)</sup> 이미 문학교육 연구에서는 향가, 고려속요, 시조, 가사 등 대부분의 장르에 대해 각각의 장르가 지닌 교육적 자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이들을 교수·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요만이 이러한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이 민요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요를 포함한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 연구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하였고,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이렇듯 민요에 대한 국문학 영역에서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은 분명 민요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학교육 연구가 문학 연구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자면, 국문학 연구의 결핍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문학 연구와 다른 차원에서 현대의 학습자들이 민요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요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 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8종의 『문학』 교과서가 발간되었다. 8종의 교과서 중에서 민요를 제재로 수록한 교과서는 모두 5종이며, 여기에 실린 작품으로 <아리랑>, <시집살이요>, <논매기 노래>, <장가>, <이어도 타령> 등이 있다. 5종의 교과서 중 4개의 교과서는 각기 한 작품 씩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우한용 외(동아출판사)에서는 세 편을 수록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지금으로서는 매우 소략한 분량이나 민요의 수록이 극히 드물었던 이전의 교과서들에 비하자면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민요의 교과서 수록 양상에 대해서는 윤여탁(1994), 이창식(1994) 참조.

2) 윤여탁(1994), “민요 연구와 교육의 현주소”,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pp.129~130, 집문당.

3) 윤여탁, 위의 글, p.131.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민요를 향유하는 중에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우선 민요가 향유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언어활동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민요라는 형식이 제시하는 삶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민요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삶에 대한 인식과 표현으로서의 민요

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모든 문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딜타이(W. Dilthey)가 지적한 것처럼 “진실한 모든 문학의 기반은 살아 있는 혹은 생생한 체험”<sup>4)</sup>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민요만큼 생활의 체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장르는 흔치 않다.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전해져 온 민요는 그 출발이 노동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산되고 향유되었다.<sup>5)</sup> 특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매체가 비교적 단순했던 민중들에게 민요라는 표현수단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각별했으리라 생각된다. 노동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노동요는 이러한 노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려진다. 이런 면에서 민요는 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를 넘어 ‘생활의 필요’에 의해 불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을 비롯한 구체적인 생활의 측면을 고려할 때 민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sup>6)</sup>

4) W. Dilthey, *Des Erlebtes und die Dichtung*, 김병욱 외 역(1998), 『딜타이 시학-문학  
과 체험』, p.45, 예림기획.

5) 조동일(1996),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 p.37, 지식산업사.

민요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향유된 까닭에 그 안에는 물태인정(物態人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sup>7)</sup> 아무리 노동요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노동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 이유도 이에서 비롯된다.<sup>8)</sup> 민요를 바라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機能’, ‘唱曲’, ‘歌詞’의 세 가지 측면을 아울러 보아야 하는데,<sup>9)</sup> 이들 세 가지 요소의 결합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민요에 물태인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는 지적을 단지 민요의 사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소재의 차원에서 다양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요 역시 인간 인식의 산물이므로 민요에 담긴 다양한 삶의 국면은 그 삶을 살아온 인간이 스스로 삶을 해석해 낸 결과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감정의 대상인 물태인정에 대해 주관적 인식이 더해진 결과물이 민요라고 할 수 있다면,<sup>10)</sup> 그 인식의 양상이야말로 민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요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사람의 입을 빌어 나타나는 것이지만, 어느 한 개인의 소산이라기보다는 민요를 공유한 공동체 모두의 노래였으므로, 민요에 담긴 삶의 인식 역시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 할 수 있

6) 민요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상층부에서 이른바 민풍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민요를 채집한 기록이 있으며, 개인적인 작시에서도 민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재남(1999), 『조선후기 민요의 실상과 한시의 민풍 수용』, 김병국 외, 『장르교섭과 교전시』, 월인.

7)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pp.92~94, 역락.

8) 이에 대해 조동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노동요는 원래 노동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노동하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다.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심정, 일의 결과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일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적 상상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노동요의 문학적 내용을 이루게 되면서 노동요는 처음의 단순하던 상태에서 벗어났다. 또한 지루하게 계속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야기 줄거리를 갖춘 긴 사설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노동요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시되어야 할 변화다.” 조동일, 앞의 책, pp.37~38.

9) 장덕순 외(1971), 『구비문학개설』, p.79, 일조각.

10) 김대행, 앞의 책, p.95.

다. 이런 면에서 개인 창작을 전제로 하는 여타의 장르와의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민요에 드러나는 인식의 문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sup>11)</sup>

따라서 민요의 향유자들에게 민요가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단지 민요에 반영된 다양한 삶의 소재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민요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인식의 문제는 또한 구체적인 표현의 양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인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민요의 표현 양상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전하는 민요의 방대한 양과 다양성 때문이다. 민요는 그 길이만 살펴보더라도 단지 두 마디 병렬로 그치는 것에서부터 이보다 수백 배의 길이를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구성 면에서도 ‘어기여 어기여’ 하는 것처럼 노동의 완급을 조정하는 무의미한 감탄사의 연쇄로 이루어진 것에서 서사 민요와 같이 복잡한 사실 구조를 가진 것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나 민요의 이러한 다양한 표현 속에서도 몇 가지 공통된 특질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선, 민요가 노래로 불렸으며, 노래란 일정한 반복된 형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자질의 핵심으로부터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11) 일반적으로도 대개의 장르는 다음이 설명처럼 그 장르 나름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화자의 선택은 이런 일반적 관습뿐만 아니라 당대 관습들의 지배를 받는다. 시의 화자가 당대의 관습적인 역할을 크게 벗어나는 역할을 하면 당대 독자들은 이런 화자의 수용을 거부한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7, p.288. 특히 민요의 경우처럼 공동체의 공유물인 경우에 이러한 성격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12) 민요의 체계를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는 민요 연구가 있는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체로 임동권(1974)의 체계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 자료집의 체계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 역시 이 자료집의 것이다. 특히, 본고는 농사요와 시집살이요를 중심으로 표현의 특질과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타의 의식요나 유희요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이라는 성격과 민요의 말하기 방식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를 통해 노래하기가 바람직한 삶의 영위와 가치는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외적인 형식 외에도 민요의 향유자들 사이에 관습화된, 대상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내적인 방식을 찾아 민요의 향유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세계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민요에 내재된 인식과 표현의 방식

#### 1. 상대적 인식과 결핍의 강조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서로 간섭하며 결합되어 있다. 특히 시가의 경우에는 장르의 형식이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요 역시 민요의 형식적 자질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삶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요의 형식적 자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병렬(parallelism)<sup>13)</sup>이라는 요소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요에는 한시(漢詩)나 시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제된 형식적 자질이 보이지 않으며, 두 마디의 기본적 대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병렬은 민요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가 된다. 물론 병렬이 민요에만 나타는 독특한 특성은 아니다. 그러나 여타의 형식적 자질이 두드러지지 않는 민요에서 병렬은 “가창 집단의 창자와 청중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식적 표현의 틀”<sup>14)</sup>로서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13) 병렬(parallelism)은 대구, 반복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병렬은 무언가가 반복되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반복이라는 용어에 포괄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이 비교적 단순한 되풀이를 의미하는 데 비해, 변화나 굴절, 비교나 대립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병렬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성기욱 외(2004),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pp.245~246, 소명.

14) 성기욱 외, 위의 책, p.249.

다시 말해 병렬이라는 요소는 민요의 작시 과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형식적 자질이다. 병렬이 단순한 반복과 달리 서로 대응되는 것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자질이 민요의 의미형성과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sup>15)</sup> 널리 알려진 <진도아리랑>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네

이 두 줄의 노래는 민요에서의 병렬 구조를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때, 청천하늘의 잔별을 보고, 자기 가슴 속의 수심을 연상하는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을 바라보고 문득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연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수심 가득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후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보다는 ‘청천하늘에 잔별이 많다’와 ‘이내 가슴에 수심이 많다’는 두 진술이 한데 엮여 만들어 내는 효과의 측면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진술이 따로 놓여 있을 때와 두 진술이 병렬되어 존재하는 것은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 둘이 연결되면서 마음 속의 수심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구체화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 속의 수심에 대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확보해 준다. 이는 화자의 가슴에 상응하는 대응물이 제시됨으로써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상대적 차이에 기반한 비교와 대조가 가능하

15) 이점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가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민요에는 특정한 방향성 없이 단순 반복, 병렬에 의해 만들어진 가사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저 재미삼아 말놀이를 벌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장타령이나 골패노래, 투전 노래 등이 보여주는 구조는 1, 2, 3, …… 등의 숫자에 맞추어 내용을 생성해 내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요와 같이 즉흥성이 강한 장르에서는 병렬의 이러한 속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의 상황을 병렬시키는 것은 화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좌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병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민요의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자연스럽게 전제됨을 알 수 있다. 그 존재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자연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든 자연물이든 자신의 심경과 상황을 토로하기 위한 상대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물기저물기 혈어놓고  
 주인네양반은 어디갔나  
 문어랑전복 손에들고  
 첩의방에 놀러갔네 (임동권, 2-221)<sup>16)</sup>

‘이물기저물기’는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이며, 노동의 현장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문어랑전복’을 들고 주인이 찾아 간 ‘첩의 방’은 이곳이 아닌 저곳이며, 노동의 현장이 아닌 유희의 공간이다. 위 노래에서는 노동의 현장에 있는 화자와 유희의 공간에 있는 주인이 서로 대립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부분에서 화자와 대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네양반’이다. 화자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때 주인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위 구절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인네양반’이라는 존재를 자신을 부리는 상위계급으로 본다면, 위의 상황은 일종의 계급적 갈등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인이 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화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화자에게 주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17)</sup> 화자는 주인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

16) 이하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모두 임동권(1974), 『한국민요집』 1~7, 집문당에서 인용하였다. 1-221은 1권의 221번을 의미한다.

17) 이 구절은 특히 <이양요>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 노래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구절 전체가 일종의 공식구로서 창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차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당대 신분 질서 속의 갈등을 통해 그 원인을 유추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 사실과 민요 속의 사실을 동일시하는 것은 텍스트 속의 화자와 실제의 작자를 서로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위 노래구절에서의 주인을 서로 품앗이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논외 주인으로 바라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sup>18)</sup> 실제로 위와 같은 노래에서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대상이 굳이 주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이 오히려 타당함을 보여준다. 위 구절은 일종의 공식구처럼 여러 각편에 등장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인’, 혹은 ‘우리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화자의 시각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불러들여진 주인이 잉여의 상태에 있는 반면 화자는 결핍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경우 일을 하는 것이 결핍의 상태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일을 하는 것이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떳떳한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결핍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비추어 본다면, 주인은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인 반면, 화자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서 이러한 상대화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18) 이 노래가 흥미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사실과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노래에 등장하는 주인의 영똥한 품행은 그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도 있다. 즉 주인을 놀리고, 거짓 포함함으로써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컨대 본문에 소개한 구절에 “무슨놈의 침이 요정해서/ 낮에가고 밤에가고/ 낮에가면 놀러가고/ 밤에가면 잠자러가네”(임동권, 2-305)와 같은 구절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듣는이의 관심을 끄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놈은 팔자좋아  
고대광실 높은집에  
남녀노비 거느리고  
호의호식 하는구나  
우리팔자 기구해서  
어부놈이 되었구나 (임동권, 1-288)

이 노래에서도 화자는 ‘어떤 놈’을 자신의 처지와 상대화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놈의 팔자’와 ‘우리팔자’가 서로 병렬 대비 되면서 자신이 처한 상대적인 결핍의 상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요의 주된 향유층이 당시 신분구조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이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음의 경우처럼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의식에 따른 자긍심이 강하게 드러난 경우도 있다.

사해창생 농부들아  
일생신운 원치마라  
사농공상 생긴후에  
귀중할손 농사로다 (임동권, 3-565)

만민의 행색이요  
친하지 대본이라  
교민화식 하옵는데  
농사밖에 또있느냐 (임동권, 3-566)

신농씨의 가신밭에  
후직씨의 뿌린종자  
시화연풍 격양가로  
함포고복 돌아보세 (임동권, 3-567)

이 노래에서는 ‘士農工商’의 네 가지 일 중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과 농업에 종사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시농공상이라는 일종의 비교 대상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병렬을 이루며 병렬적 의미망을 이루고 있지 않다. 농업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다분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절은 앞에서 논의한 상대화에 의한 자기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의 예와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사법은 있건마는  
 신농씨는 어디갔노  
 태고적시절이 언제라고  
 신농씨가 있을소냐 (임동권, 2-251)

이 노래에서는 ‘지금-여기’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대와 병렬되면서 화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민요에서 단순한 반복이 아닌 병렬이 구성원리로 작용하는 경우 대개의 화자는 자신을 상대화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자는 대타적 존재에 비해 결핍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요가 왜 결핍의 상태를 노래하게 되는 것인지, 민요의 화자는 왜 결핍에 주목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sup>19)</sup> 병렬이 단

19)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해답은 이렇다. 즉 “병렬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민요에서는 대상의 병렬적특히 대립 병렬적인 인식이 주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또, 인간(자아)의 유한성이 객체(자연)의 무한할 수 있는 측면과 함께 병렬될 때, 그 주체는 자연히 비극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김대행, 앞의 책, p.133) 이 설명에 따르면, 병렬이라는 구조가 민요의 화자가 스스로를 상대화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이고, 인간의 유한한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부각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민요를 비롯하여 여러 시가에서 나타나는 병렬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렬은 단지 민요에만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의 다양한 장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구성 양식이다. 각각의 장르마다 다양한 미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지 민요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시가에 공통되는 자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왜 민요에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는가 하는 점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병렬을 기본 구조로 한다는 점에서 민요와 동질적인 시조와 비교하면 민요의 이와 같은 특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담당층이었던 사대부들에 의해 향유되었던 시조에 나타나는 내용은 주로 ‘강호한정’이나 ‘안분지족’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향유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긍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대부들의 시조는 ‘승고’와 ‘우아’를 주된 미의식으로 하며, 민요의 미의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sup>20)</sup>

이에 대해, 민요의 주된 담당층인 농민들이 놓인 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의 생활은 그리 넉넉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요 공동체의 속성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역사적 배경사실과 나타난 표현 사이의 절대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민요의 경우 향유자들의 시선이 실제의 생활을 향하고 있어 병렬적 상대화에 의한 자기 인식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상황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낳은 반면, 국가의 이데올로기 담당층으로서의 사대부가 만들어낸 시조라는 장르의 자신의 실생활에 앞서 이념적 지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을 피하게 했다고 조심스럽게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분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 김학성(2003),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pp.176~177, 한국학술정보 참조.

## 2. 풍자적 표현과 웃음의 추구

앞 절에서 민요에서는 병렬이라는 형식적 요소와 관련하여 민요의 화자가 드러내는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자가 자신을 상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결핍 상태에 주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이렇듯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요가 향유자들에게 무엇이었는가는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요는 기본적으로 기능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에게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누구나 편하게 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노래로서 민요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요는 노동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 민요에 나타난 병렬적 사고는 자신의 처지를 타자의 상태보다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결핍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수의 민요에서 화자가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는 서러움이다. 그렇다면 서러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과 기능요로서의 민요의 성격과 다소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민요에 내재된 또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과장과 해학적 표현, 그리고 풍자의 문체와 관련시켜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뽕죽새요 (임동권, 1-547)

위 노래는 <시집살이요>의 일부분으로 여러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대 식구들의 특성을 과장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서러움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낳는 한편, 이들 대상을 회화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시집살이요>에서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시집살이요>에서는 경우에 따라 시집살이의 결과로 목을 매는 것이나, 시집의 인정을 받는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다음의 예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집온지 사흘만에  
광단치마 벗어놓고  
행주치마 둘러치고  
장지문을 열떠리고  
대청마루 폐구르고  
부엌으로 나리달아  
큰술밥술 열어보니  
칭동녹이 앉았데나  
광방문을 열떠리고  
쌀독이라 열어보니  
암거미 줄서렸네 (하략) (임동권, 1-540)

시집의 생활고를 표현한 위 구절은 다분히 과장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장적 표현은 어려운 살림을 나타내주는 한편,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러한 표현은 ‘풍자(satire)’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대상을 비꼬아 놀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풍자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풍자는 비판 그 이상을

요구한다. 다름 아닌 유머, 즉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이다. 프라이(N. Frye)는 풍자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상 또는 그로테스크한 느낌, 부조리한 느낌에 근거를 둔 기지나 유머이고, 또 하나는 공격의 대상이다.<sup>21)</sup> 상식 밖의 상황을 제시하여 시집살이라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제시하는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위의 노래는 풍자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이물기저물기 헐어놓고’ 놀려간 논의 주인 역시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풍자와 놀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단지 주인을 적대적인 존재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난 주인의 행태를 풍자하고 놀림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다. 풍자의 핵심에는 물론 비판이 자리한다. 그러나 풍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악덕, 그러한 한계를 지닌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 등을 유머나 과장, 혹은 비유를 통해 ‘재치있게 경계’하는 일이다.<sup>22)</sup> 따라서 풍자는 상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sup>23)</sup>

이는 민요가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 불리는 것이지, 삶을 포기하기 위해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풍자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하며, 작가가 그가 옹호하는 도덕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sup>24)</sup>이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민요에

21) N. Fry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옮김(2000), 『비평의 해부』, p.431, 한길사.

22) 지신희(2007),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16집, p.327, 한국고전연구학회.

23) 한 연구에 의하면 시집살이를 소재로 한 여러 민요들이 추구하는 바는 ‘갈등’과 ‘투쟁’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고’와 ‘상생’에 있다. 이는 이들 노래들이 ‘조화’와 ‘화합’, ‘상생’ 등을 지향하는 ‘체유적 시학’에 기초해 있으며, ‘서사적 대결’보다는 ‘서정적 울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김학성(2004),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이와 같은 분석을 고려한다면, 민요에서 상대적인 결핍을 강조하는 것이나 또한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풍자하는 것 모두 누군가를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보다는 ‘웃음’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풍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곧 그러한 처지의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지, 그러한 모순 상황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요는 삶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활력을 얻기 위해 불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병렬이라는 구조적 요소와 결부시켜 보자면, 병렬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또한 주어진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 주어진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다시 생활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풍자적인 웃음이 곁들여진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으며—삶의 고양을 위한 민요 교육

노래는 아무 때나 부를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노래를 불렀다. 이는 노래를 통해 슬픔을 치유하거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쁠 때 노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노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여소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렇다면 노래의 어떤 측면이 이러한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가? 본고에서 노동요를 중심으로 살펴본 민요의 표현방식과 인식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한 오늘날 문학교육이 이러한 효용을 살리는 방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 살펴 본 바, 민요에는 다양한 삶의 양상과 그러한 삶의 양상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병렬이라는 형식 속에 담겨 있다. 병렬은 자신을 상대화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 인식의 폭을 넓히

며, 문체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은 다른 장르에 비해 민요가 가지는 상대적 특징으로서 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결핍의 상태로 인식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보자면 노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동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모순적인 특성임을 살펴보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본고는 민요에 과장과 풍자라는 요소가 주되게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다. 그 결과 이러한 말하기를 통해 억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삶에 대한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고, 삶의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요가 ‘우리의 삶을 위한 문화물로서 건강하게 기능해’<sup>25)</sup> 왔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제시한 병렬에 의한 상대적 인식이나 풍자에 의한 웃음이 민요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 줄 수 있는 특징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비단 민요에만 해당한다기보다는 우리 시가의 저변에 흐르는 보편적인 자질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요라는 장르가 이미 우리 시가의 기반으로 여러 시가 장르의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민요의 자질이 다른 장르에서 역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는 당연하게 간주되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문체는 시가의 근간으로서의 민요에 살아 있던 이와 같은 건강성이 현대인들이 향유하는 노래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삶에서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나 지금이나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민요의 건강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민요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것과 같다. 오늘날의 대중문화, 특히 대중가요는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접하는 양식이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고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노래가 경제

25) 강등학 외(2000),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p.274, 월인.

원리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현대인은 노래에 대해서마저도 상품의 소비자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sup>26)</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요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삶 속에서 노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하는 효용이 있다. 현대인이 향유하고 있는 표현 방식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고양시키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빠르게 발달하는 표현 매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매체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기표현과 성장의 계기를 인간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민요를 통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민요의 외적, 내적 형식에 따라 자신을 표현해 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삶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일은 오늘날 민요의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결과가 되리라 생각한다.\*

26) 강등학 외, 위의 책, pp.274~275.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등학 외(2000),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 강진옥(1999),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의미—시집살이, 애정갈등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김대행(1999),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 김병국 외(1999),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 김준오(1997), 『시론』, 삼지원.
- 김학성(2003),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한국학술정보.
- 김학성(2004), “시집살이 노래의 서술구조와 장르적 본질”,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보고사.
- 서영숙(1996), 『시집살이 노래 연구』, 박이정.
- 서영숙(2002), 『우리민요의 세계』, 역락.
- 성기욱 외(2004),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 윤여탁(1994), “민요 연구와 교육의 현주소”,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 이창식(1994), “구비문학교육론”, 『동국어문학』 6집, 동국대 국어교육과.
- 임동권(1974), 『한국민요집』 1~7, 집문당.
- 장덕순 외(1971),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조동일(1983), 『서사민요연구』 증보판, 계명대학교출판부.
- 조동일(1996),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율격』, 지식산업사.
- 지신호(2007), “풍자의 개념과 그 방법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최원오(1999),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의 형상”, 『구비문학연구』 제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 N. Fry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옮김(2000), 『비평의 해부』, 한길사.
- W. Dilthey, *Des Erlebnes und die Dichtung*, 김병욱 외 역(1998), 『덜타이 시학—문학과 체험』, 예림기획.

<초록>

## 민요의 교육적 자질에 대한 일 고찰

조하연

민요는 우리 시가문학의 근간이 되는 장르로서 국문학적으로는 물론 문학교육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의 목표가 문학을 생활화함으로써 인간답고 풍부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민요야말로 문학의 생활화를 위한 가장 유용한 장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현실에서 민요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그다지 넓지 않다. 민요는 주로 문학사적 지식으로서 가르쳐지거나, 다른 장르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민요가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양 역시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는 단지 민요에 대한 국문학적인 연구의 부족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요를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경험이 학습자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학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그동안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민요의 향유자들이 민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했는가를 병렬과 풍자의 형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요의 특징으로서의 병렬과 풍자는 곧 상대적 인식과 웃음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민요 역시 자기 삶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향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민요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민요, 병렬, 상대적 인식, 풍자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al Qualification of Fork Song

Cho, Ha-youn

Fork Song is the basis of poetry. So it has significant meaning i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literary education. As literary education aims to make the learners to enjoy literature a way of life, fork song is the nearest genre which can be a way of life.

But in the real area of literary education, fork song has not been dealt with so. It has been taught as a knowledge, which is a part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and the number of fork songs which is included in the textbook is remarkably fewer than the other genres. The lack of research on fork song can be the reason why fork song gets an unkind treatment in the literary education. But I think that it is the fundamental reason that only few researcher interested in the influence of enjoying fork song, especially to the contemporary people.

So I tried to clarify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who enjoyed fork song: how they recognized their life and reacted about the world in singing fork song. Especially I attended two elements in the fork song: parallelism and satire. I think that parallel enabled the relative recognition, and satire draw laugh to the people. And through these ways they c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their lives. In conclusion, I think that today's people also can enjoy the usefulness of fork song, and it should be the aim of fork song education.

**【Key words】** Fork Song, parallelism, relative recognition, satire